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선정작 발표

극영화 9편 · 다큐멘터리 1편 총 10편 선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한국경쟁 선정작 10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공모에 165편의 영화가 접수,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극영화 9편과 다큐멘터리 1편 등 총 10편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한국경쟁 심사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문석, 문성경, 전진수 프로그래머 3인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심사는 역대급이었다”며 “출품작 숫자도 증가했지만, 영화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 10편을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웠다”고 극찬했다. 이어 올해 한국경쟁의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로 ‘LGBTQ’와 ‘여성 연대극’을 내포한 유사 가족’을 꼽았다. 심사위원들은 “LGBTQ 관련 영화는 한국단편 경쟁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며 “과연 한국 사회의 내밀한 변화가 자연스레 영화에 반영된 것인지, 영화인들의 희망이 투영된 것인지, 아니면 LGBTQ라는 소재를 영화제가 선호할 것으

로 생각한 감독들의 의도 탓인지는 두고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에 진출한 다큐멘터리는 단 한 편뿐이다. 심사위원들은 “소재나 만듦새가 나쁘지 않은 다큐멘터리가 많았지만 다소 상투적인 내러티브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재를 잘 부각시키지 못하는 작품도 있었다”며 “출품작 중 이은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무색무취〉는 소재나 만듦새가 모두 완성도 높은 영화”라고 밝혔다. 한국경쟁에 선정된 보석 같은 작품들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새로워진다

선발대회 행사 첫날 진행... 외국인 참가 대상 확대 · 연령 제한 완화 등 변화

남원시가 올해 95회 춘향제의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를 더욱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발대회 수상자의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일정을 행사 첫날로 조정하고, 외국인 참가 대상 확대, 연령 제한 완화 등 세 가지 주요 변화를 통해 남원시민과 관광객이 선발대회를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상자들이 개막식,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인 대동길놀이, 올해 새롭게 조성된 유채꽃밭 포토타임 및 춘향제일 페스타 참여 등 주요 행사에 함께하는 등 남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맡아 춘향제가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에서 사전 선발된 참가자



춘향선발대회 사진

들만 선발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회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가 연령도 기존 세나이 26세 이하에서

세나이 29세 이하까지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폭력 있는 춘향의 모습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변화를 통해 글로벌춘향선발대회는 단순한 전통미인 선발을 넘어, 춘향제의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올 제95회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춘향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춘향선발대회를 비롯해 전통 공연, 퍼레이드, 향토음식축제, 글로벌 문화 교류 행사 등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행사들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춘향제가 글로벌 축제로 해마다 더 진화, 발전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축제의 시작을 춘향선발대회와 함께 진행하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며, 남원춘향제의 특별함을 기대해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서동축제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 모집

익산서동축제가 시민과 함께 백제 무왕의 탄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재현한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5 익산서동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을 4월 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왕의 탄생’을 주제로 5월 3일 오후 5~7시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화려하게 펼쳐지며, 퍼레이드 이후 축제의 개막 선언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전문 공연단과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 참가팀이 어우러져 무왕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역사적 의미와 축제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우편(punnyarts@naver.com)이나 네이버 폼(ms.site.naver.com/1DCG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팀은 퍼레이드 당일 행진과 공연을 선보이며, 심사위원 평가와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빠른 응답, 이른바 쿼알(QR) 코드 방식으로 현장에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팀에게 수여되는 총상금은 1,000만 원 규모로 △1등(1팀) 300만 원 △2등(1팀) 200만 원 △3등(3팀) 각 100만 원 △4등(4팀) 각 50만 원을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 조망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교양총서 제7권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가 교양총서 제7권 ‘전북의 역사와 공존의 인문학-저항, 통제, 공동체’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양총서는 지역의 문화와 인문 자산을 발굴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교양총서는 저항과 통제,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 살아가는 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망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연구 성과를 한데 모아 출판한 만큼, 학문적 깊이와 지역적 애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라 할 수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저항’이라는 키워드로 네 편의 논문을 엮었다. 조선시대 의금부의 심문 기록인 ‘추안급국안’을 통해 전북에서 발생한 반란 사건의 의미를 살피고, 개항기에 활동했던 유학자 최제화와 조화제의 행적을 추적했다. 2부는 ‘통제’라는 키워드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다뤘다. 군산 유곽의 형성과 빈민 정책을 비롯해, 해성심상소학교 학적부를 분석해 일제가 육성하려 했던 인간상



을 고찰했다. 또한, 해방 이후 미군의 진주 과정을 통해 미군정의 지역 통제를 검토했다. 3부는 ‘공동체’에 관한 일곱 편의 논문을 담았다. 조선시대 양반 공동체 연구, 근대 지역 공동체와 유력자에 대한 탐색, 천주교 및 기독교 공동체 연구, 근현대 유학자의 사회관계망 분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조명했다. 대표 저자이자 HK+연구단의 단장인 변주승 교수는 “이 책은 전북 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이들의 삶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 의미를 대중과 나누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지역 역사학자들이 전북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연구한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 연구가 보다 친숙한 언어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전주문화재단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전주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전통놀이 활성화 및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놀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문화재단 최라기 대표이사, 이영욱 전통문화실장과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 이근산 단장, 유아교육과 양시내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우병훈 총장은 “전주문화재단과의 협약을 통



해 유아교육과 재학생에게 교육 봉사 기회와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는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에서 3회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전주문화재단 협약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8일 (재)전주문화재단과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나아가 지역의 동반 성장에 기

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중점으로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